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버리고, 우상과 건포도 과자에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1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인의 사랑을 받고, 음란한 여자가 되어버린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멜을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삽니다. 이것은 고멜이 다른 누군가에게 팔려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배반한 여인을 여전히 사랑하여, 그 값을 지불하여 구원한 호세아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행복하겠다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으로 결심했지만,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없었던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구속의 사랑이라고 할 때, 구속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지불하여 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는 그렇게 구원한 고멜을 향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당부하는 호세아와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구원(관계의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당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3절)

더 온전한 마음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하십니다. 구원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옛 생활을 끊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 좀더 많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내려놓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4절)

왕, 지도자, 제사, 주상, 에봇, 드라빔은 모두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이 의지하고, 안정감을 찾았던 우상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 당하는 고난의 시간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전에 의지했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돌이키는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5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은총으로 나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샀지만 그들이 스스로 결단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경외하기로, 돌아서기로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6:1)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6/7(월)	6/8(화)	6/9(수)	6/10(목)	6/11(금)	6/12(토)	6/13(주일)
대하 30-31장	대하 32-34장	대하 35-36장	스 1-4장	스 5-7장	스 8-10장	느 1-3장

QT

이번 주 QT 말씀

6/7(월)	6/8(화)	6/9(수)	6/10(목)	6/11(금)	6/12(토)	6/13(주일)
시 7:1-17	시 8:1-9	시 9:1-10	시 9:11-20	시 10:1-18	시 11:1-7	출 25:1-22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세요.
2. 주님과 더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기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세요.
3.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있는, 내려 놓아야 하는 (혹은 맡겨 드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